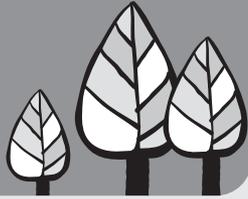


축산 소식



한우

청도소싸움축제, ‘한우고기 축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반값할인, 일요일 하루에 10마리 판매

청도소싸움축제에서 진행된 한우 반값할인행사에서 일요일 하루만에 10마리 분량의 한우고기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19일에 진행된 청도소싸움축제에서 한우불고기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역축협과 연계해 한우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 결과 일요일 하루만에 10마리 분량의 한우고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총 20여만명이 방문한 축제에서 등심 1++등급을 1kg당 5만5,000원, 1+등급은 5만원, 1등급은 4만원에 판매하고 국거리리는 1만 8,000원, 한우족 선물세트는 5만원에 판매했다.

변이덕 전국한우협회 청도군지부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최대규모의 소싸움대회와 연계해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우소비촉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3회를 맞은 청도소싸움축제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상설소싸움경기장에서 지난 4월 19일까지 펼쳐졌다.

농수축산·김동호 기자·kdh0529@afnews.co.kr

양돈

양돈산업 신뢰회복 위한 모금운동 본격화

양돈협 이사회, 사회공헌사업으로反지역정서 해소

6월까지 10억원 조성...50% 이상 매몰지역 농가제외 FMD로 실추된 이미지개선과 신뢰회복에 활용할 축산업계의 모금 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양돈업계가 첫 신평탄을 쏘아올렸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4월 15일 이사회를 갖고 양돈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각종 정책활동과 양돈업 이미지개선 사업을 통해 한돈생산지반 유지 및 지급률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협회 임원진 7천400만원을 포함해 전국의 양돈농가들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모금기로 하고 각지역별로 살처분 여부와 사육두수를 감안한 구체적인 목표액과 모금 방법까지 마련했다.

우선 비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되 50% 이상 매몰지역의 경우는 제외기로 했다.

부분발생지역(50% 미만매몰 시군, 6개도 32개지부)은 돼지 두당 90원씩, 비발생지역(7개도 58개 지부)에서는

두당 180원씩 각각 모금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경우 사육두수가 274만여두인 부분발생지역에서는 약 2억5천만원, 385만여두의 비발생지역에서는 약 7억원 정도를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여기에 사료와 동물약품, 유통 등 유관산업계의 동참이 이어질 경우 10억원 이상 모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모아진 사회공헌기금은 반 양돈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시·군과 해당지역 양로원, 마을회관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대부분 투입되며 일부는 50% 이상 살처분 지역 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모 회장은 이와관련 “FMD를 계기로 양돈에 대한 이미지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부각돼 왔지만 자조금사업은 물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헌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양돈농가들이 솔선수범해 일률적으로 모금운동과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갈 경우 국민 신뢰회복과 실추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각 양돈협회 지부를 중심으로 각종 기부사업이 이뤄져온 지역도 상당수인 현실에 주목, 또다시 모금운동이 전개될 경우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칫 부정적인 시각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모금활동과 사회공헌사업이 절실하다는데 공감, 일선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신문 • 이일호 • L21ho@chuksannews.co.kr

양계

‘한닭’ 수출육성·발전 공조 MOU 체결

한국토종닭협회 · 익산한닭농업법인 · 싱그린푸드시스템



토종닭 ‘한닭’ 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종닭협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4월 15일 전북 익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싱그린푸드시스템(대표 김준형), (유)익산한닭농업법인(대표 심순택)과 한닭 수출육성 및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토종닭협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싱그린푸드시스템과 ‘한닭’의 베트남 첫 해외 수출을 시작해 베트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첫 수출한 물량이 전량 매진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은 이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한닭의 수출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더욱 보완함으로써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목적이 크다.

이날 행사에서 김연수 회장을 비롯해 김준형, 심순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국익에 한몫을 담당하고, 또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국내 수급 조절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토종닭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앞으로 산학연정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수출단지 조성 및 활성화, 고품질 한닭 생산 연구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변동주 사무관은 ‘한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준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같이 국익과 생산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외수출에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MOU에 따라 익산한닭농업법인은 각 수출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토종닭 ‘한닭’을 싱그린푸드시스템에 공급하고, 싱그린푸드시스템은 적절한 가격에 베트남, 홍콩 지역 등에 수출을 추진하게 된다.

또 한국토종닭협회는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측과 공동노력하게 된다.

축산경제 • 박정원 기자 • wan@chukkyung.co.kr

낙농

‘희망 젖소 나눔운동’ 추진 협약 체결

민관 공조 대대적으로 전개기로 합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파동으로 젖소가 살처분 매몰된 낙농농가들의

재입식 지원과 낙농산업 기반 재건을 위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희망 젖소 나눔운동’을 민관이 공조

대대적으로 추진해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 4월 19일 낙농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생산자단체는 희망 젖소 나눔운동 참여 대상 및 목표량을 확대하고, 정부 나눔운동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정책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낙농농가들의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 외에 참여 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유정복 장관은 협약 체결식에서 “희망 젖소 나눔운동은 매몰로 젖소를 잃은 낙농가들과 희망을 나누는 것으로서 운동의 성과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낙농농가 상호간의 젖소 나눔 운동이 갑작스럽게 닦친 시련 극복에 훌륭한 본보기와 전통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는 남성우농협 축산경제대표를 비롯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신관우 낙농관련 조합장협의회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축산경제 • 이준영 전문기자 • jun@chukkyung.co.kr

양봉

2015 세계양봉대회 유치 총력

농협벌꿀품질보증조합장협의회 논의
거쳐 합의



2015년 세계양봉대회 개최를 위해 계통 농협이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1일 농협벌꿀품질보증조합장협의회(회장 조상균 한국양봉농협장)는 농협보험 수안보수련원에서 2011년도 제1차 협의회를 갖고 양봉산업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아시아양봉대회 개최에 이어 2015년 세계양봉대회 한국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2015년 세계양봉대회 개최지는 올해 9월 아르헨티나 세계양봉대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특히 참가인원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투표수가 달라지고 개최국 선정에 있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해 아르헨티나 세계양봉대회에 계통 조합장 전원 참석을 다짐함은 물론 최대한 많은 국내 양봉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농협안심벌꿀 사업 추진에 대해 농협안심축산물과 연계한 통합마케팅 전략으로 2015년 벌꿀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 및 브랜드 파워 제고,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양봉안정경영자금의 지원 기준 완화,

양봉전업농 육성(양봉핵심조합원 육성) 지원 사업 확대, 상대적으로 소외된 토봉농가 지원 확대 등을 농협중앙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순수 꽃꿀 생산 농가보호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설탕 사양꿀 양성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킨 이유로 지난 2007년 벌꿀품질보증조합 자격이 박탈된 마천농협의 재가입 신청(건)을 부결시켰다.

축산경제 • 박정원기자 • wan@chukkyung.co.kr

양록

4월3일 '사슴데이' 건강 챙기세요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지난 4월 1일 서울 명동에서 농축산단체장 및 양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사슴데이 행사를 가졌다. 양록협회는 매년 4월3일을 사슴데일로 지정하고 명동

에서 시식회를 겸한 홍보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강준수 회장은 "저질 수입육용에 우리 국내 육용시장을 잠식당하고 양록산업은 긴 침체기를 견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만이 우리 양록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사슴불고기와 녹용탕 시식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축산신문 • 이동일 • dilee@chuksannews.co.kr